



보도자료

○ 자료제공 : 크롭라이프 코리아
(CropLife Korea) 대표 김태산 (02-2055-1663, 010-8748-1514)



이 자료는 2015년 1월 30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생명공학(GM)작물 재배면적, 1억 8,150만 헥타르 기록

- 2013년 대비 630만 헥타르 증가, 1996년 대비 100배 이상 증가
- 우수한 경제적, 환경적 혜택으로 인해 가장 빠르게 채택된 작물 기술

(서울, 2015년 1월 30일) - 2014년 전세계의 생명공학작물 재배면적은 1억 8,150만 헥타르로 2013년보다 약 630만 헥타르가 증가했다. 이는 생명공학작물의 상업화가 처음 시작된 1996년의 170만 헥타르에서 100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생명공학작물 기술이 가장 빠르게 채택된 작물 기술임을 보여준다.

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tech Applications, ISAAA)의 클라이브 제임스(Clive James) 회장이 30일 방한,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 GM작물개발사업단(단장 박수철)과 크롭라이프코리아(대표 김태산)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2014년 세계 생명공학작물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전세계 28개국 1,800만 명의 농민들이 생명공학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 중 90%는 개발도상국의 영세한 농민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공학작물의 급격한 성장세에 대해서 클라이브 제임스 회장은 "생명공학작물이 주는 경제적, 환경적 이익 등 다양한 혜택이 농민들에 의해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생명공학작물을 재배하는 국가 중 개발도상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며 2014년에는 방글라데시에서 해충저항성 가지가 최초로 상업화 되기도 했다.

생명공학작물을 재배하는 상위 5개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그리고 캐나다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은 총 7,310만 헥타르에서 옥수수(93%), 콩(94%), 면화(96%)와 같은 주요작물이 90% 이상의 채택율을 보이며, 생명공학작물 재배를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각각 4,220만 헥타르, 2,430만 헥타르의 재배면적으로 미국의 뒤를 이었다. 특히, 2014년에는 기후변화 대응작물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미국에서는 가뭄에 견디는 생명공학 옥수수가 전년도보다 약 5배 이상 증가한 27만 5천 헥타르의 농경지에서 재배되는 등 미국 농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클라이브 제임스 회장은 "생명공학작물은 1996년에 상용화된 이래로 19년간 재배면적이 10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공적으로 보급되고 있다"라며 "향후 전세계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명공학작물이 인류의 식량 공급을 위한 농업 생산량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GM작물개발사업단 박수철 단장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GM작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며 “이미 글로벌 GM종자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에 대한 고민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ISAAA)

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이하 ISAAA)는 생명공학작물에 관한 지식과 응용을 공유함으로써 기아와 빈곤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로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ISAAA의 회장 겸 설립자인 클라이브 제임스는 지난 30년 동안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 생활하거나 근무하면서 생명공학 작물과 글로벌 식량 안보에 주안점을 두고 농업 분야 연구개발에 힘써왔다.

– 보고서 추가 정보: www.isaaa.org

크롭라이프 코리아(CropLife Korea)

크롭라이프 코리아는 생명공학작물 산업을 대표하는 협력기구로서, 생명공학작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 14개 국가의 작물보호협회와 6개의 글로벌 작물과학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크롭라이프 코리아의 회원사들은 농업생산성 증가에 있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하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선도역할을 하고 있다.

– 웹사이트: www.croplifekorea.org

– 연락처: 02-2055-1663 | taesan.kim@croplifeasia.org

차세대 바이오 그린21사업 GM작물 개발 사업단

차세대 바이오 그린21사업이란 국가농업생명공학 육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산·학·관·연 공동으로 실시하는 농업생명공학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말하며 이중 GM작물 개발 사업단은 생명공학작물의 실용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 웹사이트: www.gmcrops.or.kr 연락처: 031-299-1780 | usdapark@korea.kr